

제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25년 5월 26일
위원장	고영인	담당자	상근실무자 이진옥 팀장 (010-3906-2561)

이재명 후보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강원권 조직 역량 결집!

-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주요 인사 임명장 수여.
- 행사 직후 춘천 후평시장에서 민생현장 점검
- “진영 간 대립 양상. 강원지역 동자들이 나서면 실마리 풀린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위원장 고영인, 이하 위원회)가 강원 지역으로 향했다. 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28, 보람타워 3층)에서 강원권역 주요 위원을 위촉하고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균 강원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최경순 강원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한호연 강원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7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모두의나라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겨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슬로건인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서 명칭을 따왔다. 김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를 총괄했던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가 ‘모두의나라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김주환 강원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의 여론추이에서 진영정치로 회귀될 조짐이 보인다”이라고 말한 후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무책임한 대립을 넘어선 모두의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강원지역 동지들의 힘을 모으자” 고 제안했다.

김도균 상임선대위원장은 “아름다운 경선을 현실로 만든 사례는 드물다. 이 자리에는 경선의 모범사례를 만든 분들이 모였다. 모두의 힘을 모아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자 ” 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주환 공동선대위원장은 “강원 각지에 모두의나라의 꿈이 있다. 꿈이 모이면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퍼포먼스로 갈등과 분열 극복, 통합과 비전 정치 실천의 의지를 다지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 종료 직후 고영인 위원장은 춘천 후평시장 일대를 순회하며 “지난 6개월 얼마나 힘드셨나. 느닷없는 계엄은 민생경제의 주름을 깊게했다” 며 “강원도는 평화가 민생이고 안보가 경제다.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 속에 평화와 번영의 길을 닦아왔다. 4기 민주정부에 힘을 모아주시면 민생에 중심을 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고 호소했다. (끝)

-행사사진 별첨-





